

정부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

1. 관련 기사

- ☐ 2.14.(수) 매일경제, “퇴직연금 85%, 예적금에 넣는 한국, 물가도 못 따라가는 ‘쥐꼬리 수익률’” 기사 관련

2. 설명내용

- ☐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가 적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형)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,
- 그간 통계상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적립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음
- ☐ 이에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상품선택이 용이하도록 '22.7.12.부터 1년간 시범운영 후 '23.7.12.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본격 시행해왔으며,
- 작년 한해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의 연 수익률은 10.1%* 수준으로 해외 사례(6~7%)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임
- * 설정 후 1년 이상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
- ☐ 향후 공시 활성화, 상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손재형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신창모 (044-202-7557)